

여러모로 추웠던 겨울이 설 한파를 넘어 우수도 지나고 경칩과 함께 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꽃샘 추위만 잘 넘기면,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30년만의 한파와 전력수급 비상대책 가동으로 전기 다소비 산업계, 농축수산 업계, 유통 서비스업소, 사무실, 일반 가정 등 국민 모두가 추운 겨울을 감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낸 겨울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추위에 떨면서도 손에 땀을 쥐며 전력수급 비상대책 활동을 전개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및 한전 전력그룹사 임직원의 수고에 전력 산업계 종사자로서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도 이른 점심을 먹으며 싸늘한 사무실과 전력수급 예비율 상황판 아래에서 근무하는 전력그룹사 근무자를 바라보는 필자에게 큰 의문이 생겼다.

# 전력수급 솔로몬의 지혜



신 동 혁  
LS산전(주) HVDC사업실장

“전력대란을 막을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우여곡절 끝에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끝나고 심의를 거쳐 공고되었지만, 미완의 계획이라는 여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발전 확충에 따른 재벌 특혜, 기후 변화를 외면한 화력발전 확충, 과도한 예비율 측정 등 이해당사자 간의 많은 의견이 토출되고 있지만, 전례에 빚추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발전설비 확충에 따른 송변전설비 계획 불포함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획 여부 결정 지연인 것이다.

그만큼 관련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민도 엿보이는 대목이고, 내가 품은 의문에 대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 가동원전의 품질관련 인제가 겹쳐진 사안으로 정치, 경제, 환경 관련 광범위한 고려 및 타협이 필요한 국민적 합의 사안이 된 형국이다.

그러나 송변전설비 확충 문제는 원자력과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된다. 원자력, 수력, 화력, LNG 복합화력, 신재생 발전 등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통계적 기법에 의한 수요 예측과 적정 예비율에 근거한 “양(量)”에 대한 문제라면, 송변전설비 확충 문제는 “질(質)”에 대한 문제이자 “망(網)”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한전 송변전설비 납품을 20여년간 수행하면서 애를 먹었던 것이 민원에 의한 건설공기 지연이고, 그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중전기 제조업체로서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HVDC사업을 맡은 지금도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한전 건설 관계자들과 민원에 의한 공기조정 협상을 할 때마다, 푸념처럼 되뇌었던 내용이 있다. “도서벽지 첩첩산중에도 전기를 공급하지만 물, 공기와 같이 필수 불가결 하면서도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이 전기다. 당연히 들어와야 하고 어쩌다 정전이라도 되면 큰일 난 것처럼 난리다. 국민 모두가 전기는 계속, 정전 없이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꼭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망(網)인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 진다. 수도, 가스 배관이 지나고 가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는데, 왜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시끄럽지?!!!” 하고 공감반영 된 분을 토하곤 했었다.

올 겨울을 지나면서 전력수급 문제로 더 이상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인 듯 싶다. 에너지 절감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전기 요금 현실화와 누진요금 체계 개편이 차근 차근 진행 되듯이, 송변전 계통 확충 또한 확정된 발전소 건설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계통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속히 전개되어야 한다. 전력대란을 넘어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HVDC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Macro/Micro Smart Grid의 꾀목과 이해당사자들의 대안 있는 타협 의지가 솔로몬의 지혜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KEA

